

사설

비구니 부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제31대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하며 비구니 스님을 문화부장국장에 임명해 관심을 모았다. 2월 24일 법장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순간부터 새 집행부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던 터에,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한 것은 강도 높은 파격으로 비쳐기도 했다.

당초 법장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비구니부의 신설을 공약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수년전부터였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만큼이나 이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번 비구니 스님의 부장 임명은 적잖은 파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파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비구니 부장 임명의 진정한 '값'을 만들어 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첫 비구니 부장이라는 세상의 관심이 가슴에서 우리나라 존경과 존경의 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단사상 첫 비구니 부장으로 발탁된 탁연 스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실력파다. 또 승가대학에서 후진양성을 한 근년의 경력도 문화부장소임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부장이라는 자리는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변화해 가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감지하고 문화적 외연을 확장하는 순발력도 요구되는 자리다. 향후 비구니의 중무장화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함께 분발할 일이다.

금강대학교 입학식에 부쳐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라 식상하기 쉽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누리며, 찬란한 당나라의 문화를 꽃피웠다. 당시 당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였다는 점에서 불교가 당시 세계문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불교는 송대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중국문화의 주변으로 밀리더니 근대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미신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도제 양성에 무심했기 때문이다.

일본불교는 어떠한가? 극심한 문화의 변동기를 겪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대 이후 일본정부의 신불분리정책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메

이지 유신 이후 근국주의의 등장은 불교의 재산을 빼앗아 신도를 부흥시키게 된다. 이에 일본불교계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근대문명의 중심지인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다. 위기 돌파의 한 방법으로 인재 양성에 매진한 것이다. 이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불교계의 동량들이 일본 사회와 불교계의 근대화애 이바지하게 된다. 불교가 일본사회의 주도적 위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다.

천태종이 종립 금강대학교를 개교하여 첫 입학생들의 입학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이다.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에 이은 세번째 불교계 종립대학이지만 천태종에선 최초의 교육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불교계의 역사적 전환을 거울삼아 종단 발전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금강대 '소수정예' 첫 입학식

첨단교육 환경속 24시간 교육, 전문가 육성

전원 장학금·기숙사 무료·도서구입비 지원

지난해 11월 개교한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가 5일 첫 입학식을 열고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나'군으로 선발한 신입생 52명은 불교문화학부 4명, 통역학부 37명, 사회과학부 11명 등으로, 천태종 스님 4명과 외국 스님 2명이 포함돼 있다. 입학생들은 기숙사와 강의실 등 캠퍼스에서 24시간 교육을 통해 각 분야

의 전문가로 집중 육성된다. 입학생이 정원 1백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별도의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수정예의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강대 박봉식 총장은 "모든 대학에서 생각만 해오던 소수정예 교육과 세계로 나아가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학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학생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거듭난다는 각오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강대는 '세계로 나아가는 소수정예의 최고대학'으로 키운다는 교육방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교육기자재와 교육시설, 우수 교수진을 갖추고, 신입생은 내신 2등급 이상의 성적 우수자로 한정했다. 입학생 전원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



◇금강대학교는 5일 첫 입학식을 열고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급과 기숙사 무료 제공, 도서구입비 지급, 우수졸업생 유학비 지급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동국·위덕대도 입학식

한편,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

스와 경주캠퍼스는 3,078명과 2,252명의 신입생으로 4일과 5일 각각 입학식을 치렀다. 7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진각종립 위덕대도 4일 입학식을 가졌다.

논산=박봉영 기자



서울불교전문강당 1기 82명 입학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모여 전통강연의 교과목과 공부방법으로 한문 경전을 강독하는 '서울불교전문강당'이 3일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이날 제1기 입학식을 갖고 무비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시작으로 첫 수업을 가졌다. 스님 60명(비구 27명, 비구니 33명)과 재가자 22명(남 10명, 여 12명) 등 82명이 입학했다. 2년제 4학기 8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2기는 내년 3월 개강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문화에 관심 갖겠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 범장총무원장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4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20여분간 회담을 나눴다. 범장스님은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관은 "공감한다. 관광의 본질은 건물이나 물질적 향유가 아니다. 관광은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가 중심이 돼 왔고, 미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중점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홍보책자 발간

상반기 영문판도 계획

조계종이 처음으로 종단 대내의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안내 책자는 종단의 역사와 현황, 활동 등을 간단한 내용과 함께 사진으로 설명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조계종 역사 및 종단 기구표 △사찰과 수행생활 △조계종과 성보문화유산(불교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 △조계종의 주요 문화행사 △조계종의 사회활동 등이 소개돼 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 안내책자를 신도교육용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며, 올해 상반기 중 영문판 안내책자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2차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전북·제주 절 158곳 대상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 문화부장)은 12일 고창 선운사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2차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찰은 전라북도(150개)와 제주지역(8개) 158개 사찰로 태고종, 천태종 등 다른 종단 사찰도 40여 곳 포함돼 있다. 조계종은

98년과 지난해 자체 실시한 본·말사 성보문화재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700여 건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진행되는 일제조사는 문화재청 예산지원(총 50억원)으로 실시된다.

권형진 기자

복사찰 단청지원 두단체 '엇박자'

약속시기 이미 경과, 종래 입장만 고수

현재 북한 단청복사 지원을 밝힌 곳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평화통일불교협회 2곳이다. 민주본은 11일 상임집행위원 학담스님 등 6명이 평양을 방문한다. 평북협도 2월 27일 베이징에서 심상진 서기장 등을 만나 단청지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문점은 지원 시기. 민주본은 2003년 1월 "3월 말까지 1차로 28개 사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북협도 2002년 12월 "3월부터 평양 법운암 단청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민주본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평북협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면 20일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단체는 아직도 단청 지원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3.1 민족대회에서 일부 스님들은 조별련 관계자들에게 "대북지원을 민주본으로 단일화하자"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대북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주본이나 평북협의 단청 지원은 시범사찰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평북협은 2월 27일 베이징 회담에서 김성철 개성 영통사북원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북원지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 미아찾기 나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 |
|----------------------------------|-----------------------------------|
| 회장 : 노대행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 발행·편집인 : 김광삼 | 인터넷 www.buddhanews.com |
| 인쇄인 : 김규석 |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
| |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
| |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
|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6 |
| 대표전화 02-737-8881 |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
| |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
| |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